

밀수되는 애완조류의 유통경로 파악이 시급..



2006년이 다가오면서 우리 양계업계도 보다 좋은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병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아직도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부터의 해방 등 당면현안 문제해결에 있다.

지난 8일 본회 회의실에서 정부, 학계, 생산자로 구성된 위생방역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김선중 위원장(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을 비롯 13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최준구 회장이 배석하였다. 이날 회의는 HPAI 예방 및 발생시 퇴치방안, LPAI 백신개발과 활용방안, 최근 문제되고 있는 뉴모 바이러스 대책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사항은 정부건의 및 농가 홍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본고는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 편집자주 -

HPAI 예방 및 발생시 퇴치방안

HPAI 예방방안과 발생 안건으로는 우선 AI에 대한 용어정의로 저병원성 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만연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계업계에서는 대외적으로 고병원성인플루엔자

를 HPAI로,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LPAI로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키로 하였다.

HPAI 예방대책으로는 최근 철새에 대한 국내유입이 정확히 입증된 상태는 아니지만 철새·뒷새 등을 통한 유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은 물론 철새나 뒷새와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밀수로 들어오는 애완조류로 유통경로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생닭 시장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수입개방 이후 각종 질병이 유입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앞으로 가금산물 검역시 시료채취를 인원을 보강하더라도 전수 검사 수준까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HPAI 발생시 조기퇴치 방안으로 언론에서의 HPAI에 대한 방송 자제가 우선적으로 따라주어야 하며 우리나라 특성상 과밀 사육지역이 많기 때문에 살처분 정책시 농가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백신 병용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HPAI발생시 현지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살처분 정책을 펴고, 백신준비(H5N3)가 되어 있는 상

태기 때문에 백신도 병행할 의향을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HPAI 발생시 발생농장 500m이내 우선 살처분하고 전문가들이 현지지형을 감안 살처분하며, 3km이내 처분시 검역원장이 건의해서 방역협의회에서 협의 하에 실시한다고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체감염 발생시에도 치료약을 농가나 방역요원에게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 살처분 시 대형농장에서는 인원동원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할 시군과의 협조하에 조기 처리를 유도했으나 한계가 있어 방안모색의 필요성이 개선되었다.

LPAI 백신 농가 보급

LPAI는 지난 1996년 화성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지속적인 확산이 이루어져 현재 전국적으로 만연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2004년 6월 정부로부터 백신사용이 허용되면서 현재 일부 회사에서는 검증을 완료한 상태이고, 검역원에서도 실험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조만간 농가보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검역원은 현재 5개 업체가 함께 개발중에 있으며, 농가의 피해가 큰 만큼



최대한 조기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백신주를 하나로 통일하되 상황에 따라 백신주를 교체해갈 예정임을 밝혔다. 백신이 사용될 경우 근절대책 프로그램을 연차적으로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고, 이미 개발을 완료한 업체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협의회를 거쳐 앞으로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뉴모바이러스 피해와 대책

최근 양계질병 발생현황 및 대처 방안으로는 뉴모바이러스의 피해와 대처방안이 다루어졌다. 뉴모바이러스는 주로 육계와 종계군에 발생하며 마렉이나 IB등과 함께 복합 감염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되며 현재 농가들이 뉴모에 대한 인식을 못할 뿐 필드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것은 뉴모바이러스가 이번 협의회의 의제로 채택된 만큼 추후 세미나를 통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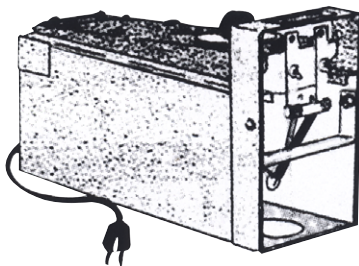
계분에 대한 관리 철저

기타의견으로는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추적과 제재조치 마련, 플라스틱 어리장 시스템 도입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각 시군별로 소독시스템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계분에 대해 관리만 잘 될 경우 상당부분의 질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의 의지로 실시되고 있는 ND근절 정책은 살처분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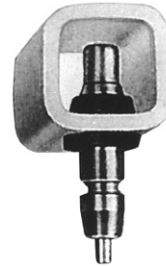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기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 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7 - 743 - 6887